



석사과정 가이드

닥터스쿠와 선배들이 알려주는

대학원 생활과 학위연구 진행 과정



교수학습혁신센터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① 석사 과정이란?

석사 학위 논문이란?	03
학위논문 진행 절차	04

② 선배들이 추천하는! 석사 입학 전 준비하면 좋은 것들

목표 및 관심 주제 설정	10
지도교수 탐색 및 면담	11
연구실 생활 알아두기	13

③ 선배들이 알려주는! 석사 입학 후에 하게 되는 일들

석사 학위 취득을 위한 졸업요건	14
학위논문 작성 시, 학기별 주요 과업(Task)	16

④ 선배들이 알려주는! 석사 과정 중 발생하는 위기요소와 대처방안

학업의 위기요소 및 대처방안	27
대학원 생활에 관한 이해 부족	27
교수의 지도방식 및 태도	28
자기관리의 어려움	32
연구 및 논문작성의 어려움	36

석사 과정이란?

석사 과정은 특정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고급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기 고안된 대학원 과정으로, 보통 2년에 걸쳐 진행된다. 학사를 졸업한 후 입학할 수 있으며 소정의 수업을 이수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가 통과되면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학술적인 석사(碩士, Master)의 의미는 학부생을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며, 일반대학원 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위(학술학위)와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산업대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위(비학술학위)가 있다.



석사 학위논문이란?

학위논문은 일반적으로 학위를 얻기 위한 요구 사항으로 작성되는 긴 형태의 연구 논문이다. 학위논문의 목적은 학생이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고 기존의 지식 체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석사 학위논문은 (연구 주제에 대해) 기존의 지식 체계를 숙지하고 있으며, 연구자로서 독립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음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석사 학위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 통과되어야 제출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대학교 석사/박사 학위 과정에서는 학위수여의 조건으로 반드시 학생은 논문을 써서 심사를 통과하게끔 되어있다. 그러나 예술 분야에서는 논문을 대신하는 창조적 작품을 만들어 심사를 하기도 한다.

비 학술학위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일반대학원에서는 대부분 학위수여의 조건으로 반드시 학위논문을 요구한다. 그러나 성균관대학의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또는 일반대학원이라도 일부 전공에서는 학위논문 작성이 필수가 아닌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의 희망에 따라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본인 소속의 대학원이 어떤 졸업요건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단과대학 학과사무실 연락처]

*소속 학과사무실 연락처: <https://gradschool.skku.edu/grad/life/office.htm>



학위논문 진행 절차

학위논문의 진행 절차는 일반 논문의 진행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아직 훈련되지 않은 연구자이기 때문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진행한다. 그러나 결국 학위연구는 자신의 연구이므로, 중요한 결정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정하되 자신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함을 잊지 말자.

연구진행절차

학위논문 진행 및 작성에 관한 책들은 도서관에서 검색해도 수집권을 찾을 수 있다. 아래에는 간략한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연구의 진행을 소개하는 것이며, 더 자세한 도움을 받고 싶다면 도서관의 책이나 유튜브의 영상을 검색하여 참고해보자



1 연구주제 탐색 및 선정

대학원에서 가장 낯설고 힘든 과정이 ‘학위논문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주제 선정은 학위연구 진행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다. 연구주제와 그에 따른 가설이 결정되면 이에 맞춰 연구설계와 방법론이 결정되기 때문에 선배들은 가장 어렵고 중요한 단계로 연구주제 선정을 꼽곤 한다.

연구주제는 내가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룰 분야를 뜻한다(쉽게 생각하면 논문 초록 하단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로도 볼 수 있다). 석사학위 연구는 대부분 초심자가 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크고 넓은 주제를 잡기보다는 자신이 실제로 다룰 수 있는 수준의 한정된 범위를 잡도록 한다.

연구주제 탐색은 경험적 관찰과 문헌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신의 관심 분야나 호기심을 확인하고 그 분야의 선행 연구를 리뷰한다.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자신이 초기에 가졌던 질문을 구체화하고, 자신이 가졌던 연구 문제를 ‘변인’을 이용해 구체화할 수 있다(김혜숙 등, 2013). 자신의 관심 분야는 평소 수업을 들으면서 흥미를 느꼈던 내용, 자신이나 주변을 관찰하면서 느꼈던 궁금함 또는 평소 관심 있던 사회문제나 업무 중에 경험했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를 포함한다.

적절한 연구주제

- 나의 관심과 흥미가 있는 주제
- 지도교수에게 훈련받고 지도받기에 적절한 주제
- 내 역량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 하기에 적절한 주제
-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가 명확하고 지나치게 방대하지 않은 주제
- 내가 관심 있는 나의 커리어 (연구 또는 취업 등) 분야에서 의미 있는 주제

2 문헌 개관

문헌 개관은 책, 논문, 자료 등을 찾아 읽고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문헌 개관은 연구진행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여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연구 초기 단계의 첫 번째 목적은 위에서 언급한 관심 주제의 탐색 및 선정이다.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경험뿐만 아니라 문헌을 통해 최신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고 관심있는 키워드들을 알아볼 수 있다.

둘째는 관심 주제를 이론과 연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관심주제가 자신의 현장 경험이나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과학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관심있는 현상이 어떤 개념이나 변인으로 정의되는지, 기존 이론과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논문에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 주제에 해당하는 선행 연구를 개관하면서 해당 영역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관심있는 변인을 찾고 구체화하며, 선행 연구들에서 아직 연구되지 않은 연구문제인지 검증하고, 기존 이론들과의 연관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의 탐색 방법: 선배들이 알려줄게! 석사학위논문 작성 TIP 참고

Part3. 문헌 탐색 및 리뷰 <https://youtu.be/GCzKc1w4wc0>



3 검증 가능한 가설 / 모델 개발

관심있는 주제 안에서 자신이 검증하고 싶은 질문과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구체화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헌을 리뷰하면서 알게 된 개념들을 활용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등 변인을 구성한다. 그리고 각 변인들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의 형태로 만드는데 이를 가설이라고 한다. Kerlinger와 Lee(2000)에 따르면, 검증 가능한 가설은 그 변인들이 측정 가능함을 시사한다. 연구는 어떤 것이 관찰될 수 있고 측정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측정과 관계를 상세히 하는 정도에 따라 연구 프로젝트의 단계들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가설이 검증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에 대한 연구는 불가능하다(Elmes et al., 2012).

4 연구 설계

가설이나 모델이 만들어지면 자신의 가설이나 모델을 검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론을 결정하게 된다. 인터뷰, 관찰, 조사, 실험 등 연구 방법을 정하고 각 연구 방법 내에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문제가 없도록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설계한다. 이때에도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게 된다. 변인들은 어떻게 조작하거나 측정했는지, 연구의 순서와 절차는 어떠한지, 고려해야 할 가외변인은 없는지 참고한다. 또한 윤리적인 이슈가 없도록 주의한다.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중에서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승인을 꼭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연구들이 있으므로 참고하도록 한다. 연구설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연구방법과 설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연구, 프로젝트, 선배들의 연구에 참여하면서 실제적인 절차를 익히는 경우도 많다. 이 단계에서 학위연구는 보통 예비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심사위원들로부터 연구 가설/모델이나 방법론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게 된다.

5 예비 연구 실시

정식 본 연구를 하기에 앞서 연구를 간단히 테스트 해보며 준비하는 예비연구(pilot test, pilot research)를 한다. 예비연구는 실제 연구와 비슷하지만 간소화 한 규모로 연구를 진행해보면서 연구 재료, 도구 및 절차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점검하는데 있다.

6 연구 실시

예비연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변인의 조작 효과나 측정치 등 연구 설계 및 진행에 결함이 없는지 점검했다면 본 연구를 실시한다.

7 결과 분석 및 해석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었다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결과를 분석한다. 이 때에도 자신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석 도구와 분석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적합한 분석 방법을 참고할 수도 있다.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수업, 선행 연구, 선배/연구실 데이터 분석 경험을 통해 익히고 적용하도록 한다.

8 논문 발표 및 출판

연구가 완료되었다면 논문 글쓰기를 하고 출판을 진행한다. 실제로는 연구 진행 과정에서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및 가설에 대해서 틈틈이 작성해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연구가 완료 된 후에 결과와 논의를 작성하게 된다. 학위논문은 일반 논문과 달리 공개된 심사위원회에 논문 심사(본 심사)를 거치게 되며, 교내에 학위연구를 제출하여 출판한다.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일반 논문으로 게재하고 싶다면, 글의 분량이나 흐름을 수정하고 공개되지 않은 해당 주제 전문가에게 심사를 받아 학술지에 출판할 수 있다. 일반 논문은 학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학술자료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좀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심사된다.

논문이 일반적인 논리적 글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주장하고 기여하는 것이므로 연구나 실험을 통해 새로운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학위논문도 일반 논문처럼 자신의 학문적 연구 결과나 의견, 주장을 일정한 형식에 맞춰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풀어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연구주제 선정, 문헌 검토, 연구 설계 및 구현, 자료 분석, 결론 도출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위키백과 참고).

학위논문과 일반 학술지 논문의 차이

항목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작성목적	학위 취득	해당 학문 분야의 새로운 연구성과를 학문 공동체에 공표/공유
분량	약 100~400쪽	약 20~40쪽
형식	소속기관(대학)의 규정에 따름	해당 학회(학술지)의 규정을 따름
심사자	논문 지도교수 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교수 (석사논문 : 3인, 박사논문 : 5인)	학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3~5인)
심사자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논문의 공개방법 및 시기	졸업과 동시에 소속 학교에서 공개	학회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동일한 호에 게재된 논문과 함께 공개

출처: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도서관 '초보연구자를 위한 올바른 논문 작성법'
<https://youtu.be/1YSnNR1jcys>

[참고자료] 학술성과 구분하기

<https://hanyang-kr.libguides.com/c.php?g=677569&p=6183542>

선배들이 추천하는! 석사 입학 전 준비하면 좋은 것들

목표 및 관심 주제 설정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이유는 뭘까?

이 글을 읽는 자신은 어떤 목적으로 대학원에 입학했는지 생각해보자.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대학원에 진학하지만 어쨌든 대학생이 죄를 지어서는 아니다.¹⁾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성장과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진학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위를 받기 위해 진학한다(여기에는 박사 과정 진학을 위한 것도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석사를 진학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 (예정된) 직업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얻거나 더 높은 연봉, 더 나은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해 진학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양한 기대와 목적 중에서 더 바람직한 것은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지, 대학원 과정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대학원에 진학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다. 다만 이것을 명확하게 자신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꼭 대학원에 진학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느 대학의 어떤 학위를 받을 것이고, 어떤 교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적합한지 탐색하고 결정한다.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있어야 대학원 생활이나 학업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기준이 명확해지고 주위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1)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에 따르면 소년이 죄를 지으면 소년원에 가고 대학생이 죄를 지으면 대학원에 간다고 한다.

성균관대학의 교수님들이나 선배들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진학하게 되었을까?

대학원 진학의 필요성: https://gradschool.skku.edu/grad/prepare/why_need.htm

진학 사례 공유: https://gradschool.skku.edu/grad/prepare/why_ex.htm



지도교수 탐색 및 면담

이렇게 자신이 석사 과정(또는 대학원 생활) 동안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했다면, 앞서 말한대로 진학 할 대학, 전공과 지도교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지도교수는 대학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어려운 대상이라 어떻게 연락드려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수님도 교수님이시기 이전에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보면, 결례를 범하지 않고 자신도 잘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선배들의 지도교수 탐색 경험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학부 생활을 하면서 자신과 잘 맞는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가장 쉽고, 대학원의 적응이 빠를 수 있는 방식은 이미 학부 수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교수를 결정한 경우이다. 수업을 통해 교수님과 학생이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이 있으므로 교수님은 학생의 태도와 학업능력을 미리 알 수 있고, 학생은 교수님의 지도 스타일을 예측해볼 수 있다. 자연스럽게 면담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연구실 스터디나 학부 연구생 등 미리 대학원 생활을 제안하거나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다면 3~4학년 때 수업을 들으면서 관심 있는 세부 전공(예: 심리학 세부전공 -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 임상심리학 등)의 교수님들을 잘 살펴보고 대학원 진학에 대한 면담을 요청드리도록 한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첫째 타 대학의 다른 전공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알아보지 않는다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둘째, 너무 많은 교수님께 관심을 보이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어장관리는 어떤 관계에서도 썩 좋은 인상을 주지 않는다.

2 학교, 학과를 결정하고 지도교수를 탐색한다.

자신이 원하는 학과가 있다면 해당 학과가 유명한 몇 개 학교들을 추리고 해당 학교 및 학과 교수님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각 교수님들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참고해서 어떤 연구주제에 관심이 있으시고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살펴본다. 단독으로 하신 연구도 좋지만 지도제자와 함께 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신이 하게 될 연구주제가 가능할지 판단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홈페이지가 없다면 논문검색 사이트(예: 구글 스콜라, RISS, 각 전공 학회지)에서 교수님을 검색하여 논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3 관심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지도교수를 탐색한다.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관심 분야나 주제가 있다면,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해당 분야 및 주제로 논문을 찾아보자. 논문의 저자를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해당 연구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연구자를 찾을 수 있다. 모든 연구자가 지도교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참고: 대부분의 국내 대학은 전임 교원만이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해당 연구자가 전임 교수인지 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도록 한다.

현재 학부생 신분이라면 2번과 3번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신이 꼭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확실하게 있다면 3번 방식이 더 적합하리라 생각된다. 특정 학교의 시스템이 꼭 필요하거나, 자신의 커리어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보다 대학이나 전공이 우선이 될 수 있는데 이 때는 지도교수 연구주제에 내 관심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도교수에 대한 탐색 이후, 교수님께 면담을 요청할 때는 메일을 보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방식이다. 답답하다고 교수님 연락처를 무리하게 알아내려고 하거나 연구실로 무작정 찾아가는 것은 교수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당혹스러울 것이다. 또 메일에서 처음부터 바로 자신의 지도교수가 되어 달라는 프로포즈를 하기 보다는,

교수님의 연구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면담을 드리고 싶다고 연락을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교수님마다 스타일이 다르실테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으며, 왜 특히 교수님께 관심이 생겨 연락드리게 되었는지 밝히면서 교수님께 면담을 요청드려 보자.

연구실 생활 알아보기

대학원 생활에서 지도 교수 만큼 중요한 것이 대학원의 선후배 동료, 그리고 연구실의 문화이다. 대학원생들의 생활 패턴도 제 각각이라 도서관이나 집에서 연구하면서 미팅과 수업 때만 학교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원 연구실로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나인투식스(9 to 6) 생활을 하는 대학원생들도 많다. 또 연구실에 따라서는 이런 출퇴근 생활을 필수로 하는 곳도 꽤 많기 때문에 정말 긴 시간을 함께 하는 동료들이 어떤지에 따라 나의 대학원 생활과 학업이 달라질 수 있다.

가능하다면 교수님 면담 뿐만 아니라 연구실에 있는 석/박사 과정생들과 면담할 기회를 얻어서 연구실 분위기, 연구실의 연구/업무 방식을 살펴보고 선배들에게 대학원에 대한 정보도 얻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연구실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세부 전공이 다른 대학원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략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해보기 바란다. 이미 입학 한 후라면, 내가 입학해서 어떤 동료가 되어주고 어떤 문화를 만드느냐에 따라 나의 대학원 생활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연구실 생활을 꾸려보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현황과 입학 준비 안내

BK21, 학과/연구실 현황: <https://gradschool.skku.edu/grad/prepare/introduce.htm>

대학원 준비 안내: https://gradschool.skku.edu/grad/prepare/information_step1.htm



선배들이 알려주는! 석사 입학 후에 하게 되는 일들

석사 학위 취득을 위한 졸업요건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석사 이후에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업들을 하게 되므로, 학위 취득을 위한 졸업요건을 먼저 알아보겠다.

다만, 아래 기준은 일반적인 것으로 각 소속 학과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소속된 학과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졸업요건 이외의 추가적인 연구 활동이나 생활을 요구하는 연구실도 많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 행정적인 학사제도 자료는 아래 링크들을 필수적으로 참고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본인 학과 소속의 행정실이나 학과 사무실에 문의하여 교육과정 이수 및 학위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주세요.

[학사제도 관련 자료]

대학원 학위과정에 대한 학사제도 안내

<https://gradschool.skku.edu/grad/edu/system.htm>

대학원 학위논문 및 졸업요건 학사제도 안내

https://www.skku.edu/skku/edu/bachelor/ca_de_schedule01.do

[단과대학 행정실 및 학과 사무실 연락처]

소속 학과사무실 연락처 <https://gradschool.skku.edu/grad/life/office.htm>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연락처 https://bit.ly/2023skku_officetele



1. 등록 및 이수학점 취득

- 4학기 이상 등록, 24학점 내외 이수 (비학술학위의 경우에는 36학점 내외 이수)
- 논문작성 및 연구윤리 과목 이수 필수 (일반적으로 1학기 필수 수강)
- 예술/자연과학의 경우, 매 학기 안전교육 이수 필수
- 누적평점평균 3.0 이상

2. 논문제출자격시험: 일반적으로 전공 2과목, 외국어 1과목

- 외국어 공인성적으로 외국어 시험 면제 가능(공인성적 기준은 학과기준 참고)
- 학과마다 시험과목의 수, Pass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예: 외국어 2과목 시험)

3. 학위논문²⁾ 작성 및 심사: 예비심사 + 본심사

- 전공에 따라 국제학회 참여, 학술지 논문게재를 필수로 요구할 수 있음
- 전공에 따라 SCI 혹은 SSCI급이나 KCI급 학술지 게재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음

4. 학위논문 제출

- 전공에 따라 영어논문 작성을 필수로 요구할 수 있음

2) 본 글에서 학위논문은 석사 학위논문 또는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을 총칭하며, 박사학위논문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각각 석사 학위논문과 박사 학위논문으로 표기하겠음.

석사 과정 학기별 주요 과업(Task)

석사 과정 동안 어떤 시기에 어떤 과업들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걱정하는 많은 대학원생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자신의 경험을 인터뷰해주었다. 아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대학원생들의 그룹 인터뷰를 바탕으로 인문사회과학 계열과 자연과학계열 대학원 선배들이 각 학기에 어떤 과업들을 하였는지 정리한 내용이다. 비학술학위자의 경우, 매 학기 밀도 높은 수업을 들어야 하긴 하지만 학기에 따라 과업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에 아래 내용은 학술학위자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대학원 생활과 학업을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

다만, 졸업요건과 마찬가지로 학문 분야 및 전공, 지도교수에 따라 각 학기에 요구하는 과업의 종류와 수준이 다르고, 소속 학과에 따라 논문(예비)심사 신청요건 및 논문제출 자격시험 응시요건 등 요건이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기수	시기	주요 과업
입학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교수 및 연구실 정보 탐색/ 교수 사전 면담 • 학부연구생, 대학원인턴생활, 연구학점제 등 참여 가능 <p>자연과학 전공의 경우는 참여가 일반적이며 이 시기에 연구실 세미나 및 연구장비 활용방법 학습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대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 학석연계과정에 지원 가능(학교 홈페이지 참조)
1기	3~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학점이수: 수강신청(9학점)*, 전공기초 및 이론 학습,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 수강 (+ 예술, 자연과학 전공은 매 학기 안전교육 이수필수) • 지도교수 미배정 시, 지도교수 탐색/면담 • 연구실 적응: 지도교수, 선후배 및 동기와 유대형성 • 학위연구-연구주제 탐색 및 선정: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선정 • 문헌탐색 및 리뷰 • 연구 참여(1기~3기 중): 자연과학 전공은 1기부터 연구보조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

2기	9~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학점이수: 수강신청(9학점), 연구방법론 수강 (또는 연구방법 개인학습) • 학위연구-연구문제 선정(2~3기): 연구주제 내에서 구체적인 연구문제 선정 • 학위연구-연구설계 및 연구진행 준비 • 연구 참여 : 연구실 프로젝트에 참여, 연구진행 훈련 (실험 및 분석 진행, 데이터 수집, 방법론 숙달)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 어학공부, 논자시** 대비 외국어 공인성적 준비/ 학위연구계획서 작성 • 지도교수 미배정시 2기까지 선정권고 • 연구설계 및 연구 진행 준비(조사문항 제작, 실험재료 준비 등) <p>(+연구실에 따라 공동연구에 대한 논문게재 훈련, 학회 논문 발표 진행 가능)</p>
3기	3~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학점이수: 수강신청(9학점) (+ 예술, 자연과학 전공은 매 학기 안전교육 이수필수) • 논문제출자격시험: 논자시 면제/응시 신청(2월말~3월초)/ 시험응시(3월말) • 학위논문 지도 · 심사 신청: 지도교수 및 예비심사 신청(4월 중순) • 예비심사 원고 작성: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문제 및 가설도출, 연구방법, 예상결과, 연구의의로 구성 • 예비심사 (5월~6월) 및 심사결과 제출 (+ 학회발표) <p>※ 영어로 논문작성 요구하는 전공 있음(점차 확대추세)</p> <p>※ 논문출판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하는 학과 있음</p>
	7~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심사 결과 반영, 연구모델 및 심사원고 수정 • 파일럿 연구, 연구 재료 준비 및 점검 등
4기	9~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논문 심사 신청: 본심사 신청/ 심사료 납부 (10월 중순/11월 초) • 연구수행, 데이터 수집(본조사, 본실험) 및 데이터 분석 • 논문 작성 및 퇴고 : 예비심사 수정원고 + 결과 및 논의 작성 • 본 심사 (11월~12월) 및 심사결과 제출 (+ 학회발표) • 학위논문 원고 제출 (확인 서류, 온라인 파일, 인쇄본 각 1부씩 행정실에 제출)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 후 진로준비 (박사진학 또는 취업준비) • 학회발표 또는 논문게재: 학술지에 학위논문 출판은 학위논문 작성과 별도 작업

※ 타 전공으로 대학원 진학 시, 학부 수업 선수과목으로 수강해야 할 수 있음.

※ 논문제출자격시험 : 줄여서 논자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논문심사를 받기 위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으로 학과마다 다르지만 [학과에서 선정한 2~3과목 + 외국어 시험]으로 구성된다. 보통 3기에 치르며 Pass/Fail이다.

출처 : 교육개발센터(2022). 석사학위자 FGI(Focus Group Interview)

위에 작성된 시기는 1학기 입학 기준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큰 틀에서는 아래 '올해 대학원 학사일정 확인'을 참고하고, 더 자세한 것은 행정실이나 학과사무실(p.14 참고)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

올해 대학원 학사일정 확인

https://www.skku.edu/skku/campus/skk_comm/event.do

1기 3~8월



등록/학점이수

이수학점은 학과마다 다르지만 보통 24학점이고 비학술학위의 경우에는 더 많은 이수 학점을 요구한다. 24학점은 3학점 8과목이므로 입학한 첫 학기인 1기에 3과목, 2기에 3과목, 3기에 2과목을 수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학부 전공과 다른 타전공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전공에 대한 학습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학부 수업을 선수과목으로 수강해야 할 수도 있다. 수강 신청 기간은 보통 2월 중순이며, 성균관대학교 수강 신청 사이트(<https://sugang.skku.edu>)에서 진행된다. 1기에는 주로 전공기초 이론을 수강하면 되지만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 등 학과나 지도교수의 필수 지정과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수강 신청 하도록 한다. 특히 예술대학과 자연과학 전공의 경우, 정규과목은 아니지만 매 학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도교수 선정 및 연구실 적응

입학 이후에도 지도교수가 배정되지 않았다면, 1기에 지도교수를 탐색하도록 한다 (p.11p~13p 참고). 비학술학위자의 경우는 3기에 임의배정 받기도 하지만, 학술학위자라면 지도교수가 선정되어야 학위연구와 관련된 진행이 실질적으로 진행 가능하다. 지도교수가 선정되어 있다면, 지도교수 및 연구실에 잘 적응하면서 연구실에서 훈련해야 할 기초 역량들을 탄탄하게 쌓도록 한다. 또 나중에 필요할 때만 동기와 선후배를 찾기보다 1기 때 동기나 선후배와의 유대관계를 잘 쌓아 두도록 하자. 선배들은 힘든 대학원 과정에서 동료들이 심리적, 학문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학위연구 - 연구주제³⁾ 탐색 및 선정

학위논문 작성이라는 대장정의 첫 시작인 연구주제탐색 및 선정! 연구주제의 탐색은 문헌, 연구실 연구주제, 지도교수 추천 주제, 자신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주제, 자신의 업무 경험, 사회문제 및 기사 등 이론과 경험에서 모두 진행될 수 있다(하단 석사학위논문 작성팁 영상 참고). 그러나 어떤 주제이든 학위 연구의 주제를 선정할 때는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되,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석사 학위 논문은 자신이 독립된 연구자로 훈련되었음을 보이는 논문이며, 따라서 아직 경험도 없고 훈련도 되지 않은 석사 과정생의 경우 혼자서 주제를 결정하기 보다 논문 진행을 함께 하며 지도 할 교수의 동의를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논문주제를 결정할 때 내 지도교수가 잘 지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자. 지도교수가 모든 주제를 다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교수가 더 잘 훈련시켜 줄 수 있고, 지도교수에게도 흥미와 관심이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문헌탐색 및 리뷰

대학원에서 문헌탐색은 다양한 단계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선배들은 도서관 문헌검색을 활용하거나 구글 스콜라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아래 링크와 연결된 영상을 살펴보면 구글 스콜라의 알람 받을 키워드를 등록해서, 최신 연구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도록 하거나 리뷰한 문헌을 정리하여(한글/워드, 엑셀, 노션 등 이용) 3~4기 논문을 쓸 때 찾기 쉽게 하는 등 다양한 노하우를 들을 수 있다.

연구참여

대학원의 연구는 자전거 타기나 수영하기와 같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실제 경험을 쌓으며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연구실 프로젝트나 선배들의 연구에 연구 보조로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연구과정과 논문작성을 어깨너머로 배우거나 경험해보는 기회가 필요하다. 연구실에 따라서는 이러한 훈련이 학회발표나 논문게재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인문사회 전공은 주로 2기에 연구 참여 경험 기회가 많은 것으로

3) 연구에서 다룰 주요 관심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초록 하단에 작성되는 주요 키워드로 볼 수 있다.

보이고, 자연과학 전공은 1기 때부터 프로젝트에 연구보조로 참여하여 연구 장비관리나 사용법을 습득하면서 시작해 3~4기 때는 후배를 훈련시키며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PM(Project Manager)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배들이 알려줄게! 석사학위논문 작성팁

Part1. 학위연구 진행절차 <https://youtu.be/WGwtspkQhWQ>

Part2. 연구주제 탐색 및 선정 <https://youtu.be/YNACBsX4JSM>

Part3. 문헌 탐색 및 리뷰 <https://youtu.be/GCzKc1w4wc0>



2기 9~12월 / 1~2월



등록/학점이수

1기와 마찬가지로 2기에도 9학점 3과목을 수강한다. 2기에는 통상 연구방법론 과목을 수강하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한다. 바로 다음 학기인 3기에 학위연구를 실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 학위연구에 활용하게 될 방법론들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다. 조사, 실험과 같은 연구방법과 자신이 다루게 될 분석 도구(SPSS, SAS, mplus, python, R 등)는 물론 기초 통계 개념이나 세부 검증방식 등 학습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학위연구에 연구방법론이 결정되었거나 후보가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미리 공부해두자!

학위연구 - 연구문제 선정

1기에 연구주제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아직 주제와 연구문제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주제탐색 및 선정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자. 그리고 연구주제가 선정되면 구체적인 연구문제 즉, 검증가능한 구체적 가설로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하자. 이를 위해서는 가설의 도출의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문헌적인 증거들을 잘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연구문제는 이전에 검증된 적이 없고, 도출과정이 논리적이며, 학술적으로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강하는 과목에서 소논문 작성과제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발굴하고 문헌은 탐색해보는 등 수업과 학위논문 작성을 연결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학위연구 - 연구설계 및 연구진행 준비

3기에 바로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면, 겨울방학 시기에 연구설계와 진행 준비를 대략적으로 끝내두는 것을 추천한다. 연구설계는 변인과 각 변인의 조작이나 측정법을 확정하는 것, 그리고 연구재료와 연구 진행절차 등 세부적인 진행과정을 것들을 포함한다. 전

공, 지도교수 및 본인의 성장속도에 따라 학위연구를 시작하는 시기는 천차만별이지만 3기에 예비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기타

바쁜 3기를 대비하여 미리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어학성적을 받아두기도 한다. 또한 학위연구계획서를 작성해보면서, 실제로 준비가 미흡한 부분을 찾고 방학 동안 해당 부분의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지도교수가 미배정된 상태라면 2기까지는 지도교수를 선정하도록 한다. 3기에 학과에서 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의로 배정된 지도교수를 만나기 전에 자발적으로 나와 잘 맞는 지도교수를 탐색하고 면담을 진행해보자.

3기 3~6월 / 7~8월



논문제출자격시험

논자시라 불리우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논문작성 및 제출을 할 수 있는 학업능력과 역량을 보여주는 시험이다. 때문에 보통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받기 전인 3기에 치르게 된다. 학과마다 다르지만 합격기준은 70점 기준이며, 불합격한 과목은 재응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3기 3월 초에 GLS에서 신청하고, 3월 말에 시험을 보는 일정이므로 행정실이나 학과사무실에서 오는 안내를 잘 확인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이 중에서 외국어 과목은 공인 외국어 성적이나 별도의 수업을 수강하는 것으로 면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2기에 미리 공인성적을 준비해두는 선배들도 있다. 외국어 성적 기준은 학과 별로 확인하기 바란다.

학위논문 지도·심사 신청원 제출

예비심사를 보기 위한 신청이며, 보통 4월 중순에 지도교수 선정 및 예비심사에 대한 공식적인 서류를 학과사무실이나 소속 행정실에 제출하게 된다.

예비심사 원고작성

예비심사는 보통 3기 5월~6월에 진행되며, 예비심사 원고는 결과와 논의를 제외한 논문전체라고 보면 된다. 즉, 서론과 이론적 배경, 예정된 연구방법(진행절차 및 연구자료), 예상되는 연구결과, 예상되는 연구의의와 제한점 등을 작성한다. 3기에 예비연구(pilot test)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연구의 진행 결과를 포함하기도 한다. 전공에 따라 최종 논문을 영어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서 예비심사 원고부터 적합한 언어로 작성하도록 한다. 논문을 작성할 때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다. 몇 줄을 쓰는 것도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너무 힘들어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이전 논문작성 경험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논문작성법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써야하는지 감을 익히면서 쓰도록 한다. 작성된 원고는 다 완성된 후에 지도교수에게 보여드리기 보다, 진행 상황이나 진행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을 상의드리는 것이 안전하다. 연구 문제가 바뀌거나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쓰는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지도교수와 자주 상의하기 어렵다면, 논문작성 경험이 있는 선배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예비심사

교내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이 꾸려지고, 예비심사 원고를 심사 2~3주 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하게 된다.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는 보통 심사당일에 공표된다. 심사결과에 대한 공식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비로소 예비심사에 통과된 것으로 행정처리가 마무리 된다.

연구 설계 및 원고 수정

방학이 되면 심사 피드백을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설계를 수정하거나 이론적 배경이나 가설도출 과정 등 논문을 수정한다. 그리고 실제 연구진행을 위한 세부 준비를 마친다.

4기 9~12월 / 1~2월



학위논문 심사 신청원 제출

본심사를 보기 위한 신청이며, 보통 10월 중순에 본심사에 대한 공식적인 서류 제출과 심사료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연구수행,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본조사나 본실험을 진행하며 데이터를 모으고 거의 동시에 데이터 분석을 시작한다. 본 심사가 보통 1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월까지의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는 것이 안전하다.

논문작성 및 퇴고

예비심사 원고에 결과와 결과에 대한 해석을 덧붙여 논문작성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비심사 원고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다시 쓰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논의에는 연구요약과 함께 결과에 대한 해석, 가설이 지지되었거나 지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과 선행 연구와의 연결성,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등을 작성한다. 본 심사 원고도 예비심사 원고와 마찬가지로 지도교수와 2~3차례 피드백과 수정을 교환하는 것이 안전하다.

본심사

예비심사와 마찬가지로 교내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이 꾸러지고, 최종 심사 원고를 심사 2~3주 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한다. 본심사도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도 심사당일에 공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위논문 원고 제출

본심사에 통과되면, 확인 서류와 논문 파일 및 인쇄본 1부를 1월 초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행정적인 마무리가 된다. 따라서 12월 심사가 끝나도, 심사위원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학위논문을 수정하느라 바쁜 경우가 많다.

졸업 후 진로 준비

박사과정 진학을 포함하여, 취업 등을 준비하는 때도 4기이다. 이 시기가 너무 바빠서 아예 논문제출을 다 완료한 이후에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적어도 박사과정에 진학 할 것인지 혹은 (당장은) 취업을 할 것인지 정도는 정해야 불필요한 공백을 줄일 수 있다.

학회발표 또는 논문게재

학위논문을 교내 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표하는 작업이다. 필수는 아니나, 연구자로 계속 활동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은 경력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 연구주제에 맞는 국내/외 학회에 포스터 발표나 구두발표를 하기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은 후 게재하기도 한다. 혹은 학과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학술지(예: SCI, KCI 등)에 논문을 게재하면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니 목표를 잘 정하도록 한다. 학위논문보다 학술지 논문 게재의 기준이 높고 까다롭지만, 추후 논문 출판을 목표로 한다면 학위논문 작성과 심사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원고분량도 적기 때문에 고려해볼 만하다.

선배들이 알려주는! 석사과정 중 발생하는 위기요소와 대처방안

석사과정은 대학원에 대해 처음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논문작성 경험도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다. 자신의 학업을 어렵게 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알려준 학업의 위기요소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학업의 위기요소 및 대처방안

	학업 위기요소	대처방안
1	대학원 생활에 관한 이해 부족	진학준비 활동, 대학원 OT 참석 및 동료와의 협력/지원
2	교수의 지도 방식 및 태도	소통의 노력, 준비된 상호작용, 선배들의 조언과 도움
3	자기관리의 어려움	휴식 및 보상 마련, 구체적 목표설정, 학습동기 자극, 동료들의 심리적 지원
4	연구 및 논문 작성의 어려움	선배의 도움, 연구주제 탐색 노력, 연구실 외부 학술 활동



대학원 생활에 관한 이해 부족

대학원에서 진행하게 되는 연구나 학업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대학원을 진학했거나 학사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행정상 필요한 서류를 내지 못해서 졸업이 미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진학준비 활동, 대학원 OT 참석 및 동료와의 협력/지원

대학원 입학 전, 대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대학원을 졸업 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들을 통해 대학원에서 연구를 한다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탐색해보도록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진학 할 대학원 연구실의 선배들에게 알아보는 것이지만, 쉽지 않다면 다양한 전공과 대학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 대학원의 일반적인 생태에 대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입학 후에는 대학원 전체 OT나 필수교육(예: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 등)을 잘 듣고 파악하도록 하자. 그리고 학사일정표를 참고하고 대학원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행정적인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원의 사람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대학원 연구나 행정적인 부분들 중에 놓치는 것은 없는지 교류하는 것이다.



교수의 지도방식 및 태도

지도교수의 부재, 지도교수의 소극적인 태도나 지원 부족, 학생의 관심 분야와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교수 중심적 논문지도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수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대학원생들의 어려움이 가장 컸다.

“저는 관련된 수업이나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주제인데,
지도 교수님께서도 이 분야가 괜찮으니까
한 번 계속 해보라고 하셔서 어려웠어요.”

“교수님은 사실 존재 자체로 여전히 어려운 존재로 느껴져서,
선뜻 말을 먼저 건네기가 쉽지 않아요.”





소통의 노력

지도교수는 졸업 후에 만나도 어렵다고 말한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편히 갖자. 대신, 지도교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잦은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끊임없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려움을 그나마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도교수가 어려운 존재로 느껴져 가급적 필요한 소통만 하거나 잘한 모습만 보이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누구든 서로를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나와 소통하기 힘들어하는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지도교수에게도 마찬가지다. 내가 먼저 진행상황과 막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지도를 받고자 노력해보자.

실제로, 자주 찾아가면 지도교수가 귀찮을까봐 지도와 승인 없이 논문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긴 시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회사에서도 중간보고가 중요한 것처럼, 논문 진행 과정도 지도교수와 밀접하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오랫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보다는 막히고 있는 부분들이나 더 낫다고 생각하는 대안에 대해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중요하다.



준비된 상호작용

소통의 시도와 함께, 준비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교수와의 소통 과정에서 너무 의존적인 태도로 영성한 준비를 해가는 것은 오히려 지도교수와의 불화를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다.

‘설문지 구했는데, 이대로 써도 될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와 같이 허가를 구하기 보다는 ‘설문지 구해서 검토했더니 신뢰도와 타당도도 적절하고 연구대상 연령도 적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항을 살펴보니 몇 문항은 이러한 점에서 수정이 필요하여, 이리이러하게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라며 설문지 원본과 잠정적 수정 내용을 가지고 온다면 어떨까?

또 논문의 경우도, 자신이 쓴 글을 스스로 점검도 하지 않은 채 교수에게 보냈다는 느낌이 들만큼 지나치게 무성의해 보여서는 곤란하다. 내가 지도교수의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주체적인 자세로 피드백을 받을 준비가 된 상호작용을 기꺼워하지 않을까?



선배들의 조언과 도움

다만, 모든 것을 지도교수에게 가져가 물어보고 상의할 수는 없으니, 선배들을 활용하자. 내 눈 높이에 맞춰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이 선배들이다. 지도교수의 지도방식을 내가 바꾸기는 쉽지 않다. 입학 전, 내가 이 지도교수님을 선택했던 원래 취지를 잘 떠올리면서 지도교수의 스타일과 훈련의 의도를 잘 알고 있는 선배들을 통해 맥락을 파악한다면 쓸데없는 마음의 상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지도교수의 사소한 언사나 행동에 상처받을 때는 동기들과 함께 회포를 풀거나, 선배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 컨디션을 회복하고 이 모든 과정이 의미가 있고 끝이 있음을 인식하며 스스로 힘을 내보자.

“제가 정말 부득이하게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수님께 제가 이러이런 과제와 업무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시면 대부분 이해를 해 주셔서 ...”

“... 3기 때 했던 연구에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나 더 하라고 하셔서 ‘내가 부족한가?’, ‘연구를 하나 더 해서 다음 학기에 졸업은 할 수 있을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름 뭔가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국내 논문 나중에는 해외 학술대회 발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당신 나름의 성장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도교수에게 하는 적절한 기대 수준

논문의 전 과정은 연구자가 자율적·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도교수의 승인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적절한 지점을 찾아 상호작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말이 쉽지 이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지도교수와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연구주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학위논문인 경우, 저자는 자신이며 지도교수는 그 과정을 가이드하는 지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논문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예: 주제 및 가설 선정, 연구방법 선정, 연구과정의 중요한 의사결정, 논문작성 및 수정 과정)은 지도교수와 미리 의논하되, 세부적 진행은 연구자 스스로 해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지도교수가 명확하게 Yes, No로 대답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위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자가 논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안목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이유도 있다(김혜숙 등, 2013). 따라서 내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지도교수와의 대화에서 적합한 수준에 이르도록 하되, 지도교수의 적합한 조언과 지도를 수용하는 태도를 갖춘다면 훌륭하겠다. 무엇보다, 지도교수의 연락을 기다리기 보다는 적절한 준비를 갖추어 지도교수에게 연락드려보는 것이 좋겠다.





자기관리의 어려움

대학원에서 학업을 진행하다보면 의욕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생활 상의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너무나도 자율적인 생활 방식이 오히려 자신을 나태하게 만들기도 하고, 오히려 너무 많은 프로젝트와 연구들이 자기 관리를 못하게 만들 때도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삶과 학업 모두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불안감, 무기력감과 같은 정신적 부분을 관리하고 운동 부족이나 체력 저하, 급격한 체중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저는 대학원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공부 의욕이 떨어지는 상황 슬럼프 상황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

“다른 친구들은 사회생활 경력도 쌓이고, 진급도 하는데 진짜 이렇게 해서
논문 졸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불안이 엄청 컸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폭식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체중이 급격히 불어나기도 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계속 앓아 있다보니까 눈 아픈 건 기본이고 이제 허리 목 다 아팠던 것 같고 ...”





휴식 및 보상 마련

공부와 연구가 직업인 대학원생들이니 이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떻게 하면 연구와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공부와 연구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체력을 관리하고 질 좋은 휴식을 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이나 점심 식사 후 산책, 혹은 매달 등산과 같은 활동을 통해 체력을 챙기면서, 연구에서 막혔던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도 있는 휴식을 취해보자. 선배들은 동료들과의 술자리, 영화관람, 게임, 여행 등 다양한 취미들을 적절한 보상으로 활용하는 것이 연구에 활력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휴식이나 취미가 다시 연구를 시작하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 목표설정, 학습동기 자극

구체적이고 달성할 방법이 명확한 과정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을 연습해보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등, 대부분의 목표는 한 번에 달성하기에 어렵거나, 졸업 시점에 달성할 수 있는 한참 뒤의 일로 여겨질 수 있다. 크고 모호한 목표는 때때로 달성하기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이럴 때는 단순하고 쉽고 구체적인 과정 목표를 정하고 실행에 집중해보자. 매 학기 자신이 어디까지 달성하고 싶고, 어디까지 달성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성취감을 느끼고 전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매 학기도 멀다면 지금 해야 하는 일의 단위를 쪼개어 하나하나 실행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작더라도 확실한 성취감을 느껴보자. 너무 나태해지는 경우에는 자신을 스스로 자극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그래서 정말 추진력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기간 내에 달성하는 게 정말 어렵고...
사소하게는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고) 내일로 미루지 않는 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 매년 학술대회 교육학회가 있을 때마다
포스터든 논문이든 무조건 나가보려고 했어요.
그러한 학술대회 경험도 사실 많은 자극과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병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것들과 스케줄이 꽤 명확하고,
업무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 연구를 덧붙여서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그 전반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일스톤으로 사용했습니다.”





동료의 심리적 지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 과정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게 느껴진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선배들이 입을 모아 말한 것은 단언컨대 동료들의 지지와 지원이었다. 동료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이 큰 자원과 자극이 되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마음의 위로가 되며, 시작의 에너지가 된다.

“... 좀 멘탈이 무너지는 일들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좀 서로 이제 형들 누나들 그리고 동기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저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들도 어려워하고 있고 서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정신적인 지지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고.”

“... 동기를 통해서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 교환 외에도 다른 예를 들어서 공부할 때에도 비슷한 부분에서 좌절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학업 진행함에도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 가지고 ... 동기에게 가장 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어쨌든 석사 과정을 약간 버티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같이 지냈던 박사 과정 또 석사 과정에 뭔가 동료들이 같이 있어서 ... 그래서 같이 뭔가 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얼마만큼 원만한 관계를 약간 유지해서 같이 해가면서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연구 및 논문 작성의 어려움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과업인 연구 및 논문 작성 자체의 어려움에 또한 학업 적응의 저해요인으로 언급되었다. 특히 석사과정생은 대부분 연구와 논문 작성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배들은 매 과정 하나하나가 그 존재 자체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고 이야기 했다. 예를 들면, 연구 진행 과정에서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 논문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 등이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연구 주제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경우가 많았다.

“... 논문 작성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주제를 뭐를 해야 할 것인가가 되게 저는 어려웠거든요.”

“공부는 약간 효율이 안 좋아도 제가 투자하는 만큼 뭔가 아웃풋이 확실하게 나오는 느낌이었는데 연구는 사실 제가 노력하는 것 대비해서 뭔가 결과가 확실히 좋은 결과가 확실히 나온다고 좀 못 느꼈거든요.”

“논문 쓰는 과정에서도 너무 막연하고 막막해서... 아예 없지는 않지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부적인 가이드나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배의 도움

대학원은 많은 경우 도제식으로 진행이 된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연구와 논문작성을 획일화 하여 가르치기 어렵고 자전거 타기와 같은 ‘실행’이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처음부터 해보기 어렵다면 다양한 케이스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닥터스쿠 개인의 생각입니다^^).

즉, 직접해보기 전에는 이 과정을 먼저 해본 선배들의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배들이 하는 연구나 프로젝트에 작은 역할이라도 참여하거나,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연구관련 일들을 선배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관찰하면서 좋은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을 구분해보는 것은 생각보다 큰 자원이다. 이도 어렵다면 선배들과 접점을 만들어 연구경험에 대한 수 많은 노하우를 듣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시작되고 난 후에 만나는 다양한 어려움과 난제를 해결할 때도 선배들은 (지도교수님에 비해) 빠르게 도움을 청하거나 상의 할 수 있는 대상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도교수 및 선배들과의 주기적인 세미나 또는 선배들과의 공동 연구 진행 등이 아예 정례적인 학술활동으로 잡혀있는 연구실이라면 해당 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박사 과정생분들 주도로 논문 출판을 훨씬 더 많이 돌렸어요
그래서 진짜 논문을 한 세네 개씩 걸쳐가지고
이제 저희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제일 주요했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석사 과정생들의 경우에는 일단 다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연구실에 대한 이해가 덜한 반면에
박사 과정생분들은 오래 계셨던 분들이 비교적 많아서 그래서 그분들이
세미나를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주시고 앞으로 연구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안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기뿐만 아니라
 선배라든가 지도 교수님도 많은 도움이 됐고
 연구를 할 때 그 방향이 아니라고 바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선배랑 지도 교수님인데
 자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연구주제 탐색 노력

선배들은 연구주제를 찾는데 지름길은 없고, 문헌탐색을 포함해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주제를 탐색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너무 큰 범위 안에서 시작하면 막막하기 때문에 자신의 흥미나 관심, 연구실의 연구주제, 커리어와 관련된 최신 키워드 등 큰 테두리 안에서 연구주제를 찾거나 각 키워드들을 연결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p.5, p.19~20 참고)



연구실 외부 학술활동

연구실이 없는 경우,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 동기와 선배가 없다면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도교수와 함께 몇 명의 동기나 선배는 있기 마련이므로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해보려는 노력을 해보자.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다면 연구실 외부의 학술활동도 가능하다. 자신의 전공 중 다른 세부전공의 대학원 동료들, 혹은 전공분야의 학회, 혹은 전공이 전혀 다르더라도 다른 대학원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부적으로는 다르겠지만 공통된 연구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나누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보고 배울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 꼭 이제 본인 연구실이 아니어도
외부에 있는 대학원생들이랑 좀 네트워킹을 하면서
같이 조금 지식을 좀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본인 지식을 늘려갈 수 있었던 게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

“... 제가 속했던 학과의 경우에는 외부 초청 강좌라든지
아니면 그 학교에서도 석사나 박사 이상, 박사 졸업하신 분들이
특강을 주도적으로 해서 가르쳐 주시고 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제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 교육개발센터 대학원 학습법 특강

매해 여름, 겨울 방학 중 개최

매해 여름, 겨울 방학 중, 학교 홈페이지 행사/세미나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성균관대학교

교수학습혁신센터